

HEADLINE NEWS

시립화장장 시설 확충·서비스 수준 개선 (파리)

프랑스 파리시의 장묘문화도 최근 매장에서 화장(火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현재 파리시 화장률은 최근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리시 페르 라세즈(Pere Lachaise) 묘지 내 화장장의 연간 화장건수도 현재 약 4,000건을 기록, 1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화장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페르 라세즈 묘지 내 화장터를 약 2억 8천만원을 들여 새롭게 정비, 지난 11월 1일 일만에 개방했다.

새롭게 조성된 화장장에는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 450m² 규모의 4개 홀이 추가 건설되었다.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준 또한 대폭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운구가 도착하는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한 뒤 생기는 유골분(遺骨粉)도 도로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든 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골은 2,600위 규모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화장 후 4주 동안 무료로 보관해주기도 한다.

(르 파리지앵, 10. 30)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시내 유휴지 개발문제로 논란 (파리)
- ② 민관파트너십으로 「통합가로시설물」 설치·관리 (보스턴)
- ③ 샌드니 종합경기장 주변을 새로운 업무지구로 개발 (파리)

도시환경

- ④ 시내 전차역마다 「담배꽂초함」 설치 (독일: 브레멘)
- ⑤ 2002년 하반기부터 '무공해'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시행 (L.A.)
- ⑥ 배기가스정화장치 장착한 디젤차에 '인증스티커' 부착 (동경)
- ⑦ 「자동차배기가스 無人단속기」 도입 추진 (런던)

도시교통

- ⑧ 노후교량 보수공사 전면 시행 (파리)

사회복지

- ⑨ 청소년들이 자발적·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위원회」 창설 (파리)
- ⑩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위해 보육시간 연장한 탁아소 설치 (파리)

행·재정

- ⑪ 음식판매포장마차-지역음식점간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L.A.)
- ⑫ 市長이 자치구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시정 보고 (파리)
- ⑬ 만화제작 벤처기업의 캐릭터 상품화 지원 강화 (동경)

① 도시내 유희지 개발문제로 논란 (파리)

프랑스 파리市 제17區는 도시내 유희지인 카르디네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각 기관을 돌며 개발의 당위성 및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市의회 녹색당 소속의원 및 당선자들은 區의 개발계획이 공원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區는 총 40헥타르인 카르디네 부지 중 9~12헥타르만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반면, 녹색당은 이 곳을 '지역의 허파'로 생각해 30헥타르 규모의 공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리시驛 주변에 위치해 있는 카르디네 부지는 파리경계지역 또는 주변교외 지역으로 가는 길목으로, 3~4개의 철도역과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는 나대지이다. 이 곳은 지역의 중심부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파리市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어왔다.

(르 파리지앵, 10. 29 / 10. 31)

② 민관파트너십으로 「통합가로시설물」 설치·관리 (보스턴)

미국 보스턴市는 'Blue Hill Avenue' 지구를 시범사업구간으로 정하고, 「통합가로시설물설치사업(Boston Coordinated Street Furnitur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市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3개의 공중화장실, 9개의 주변지도·버스노선 안내표지판, 4개의 공중전화부스, 10개의 버스승차대를 이 구간에 통합 설치했거나 설치중이다. 市는 내년도에는 이들 시설물의 추가 설치 외에, 안내 키오스크, 신문가판대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市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민간업체가 관리를 맡는, 이른바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市는 또한 가로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해 얻은 광고수입을 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市는 향후 사업구간을 4곳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www.ci.boston.ma.us/news/pr.asp?ID=1059)

③ 생드니 종합경기장 주변을 새로운 업무지구로 개발 (파리)

프랑스 파리市 북쪽에 위치한, 1998년 월드컵구장으로 이용되었던 생드니 종합경기장 주변 75헥타르 규모의 단지가 파리의 새로운 업무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경기장 주변 단지는 활성화 지역(ZAC)으로 지정되어, 공기업인 전기 가스공사와 생고뱅 등 민간기업의 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며, 내년에는 방송사 카날 플러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2002년 개발이 완성될 이 단지에는 앞으로 총 6,500여 업체가 입주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도 9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市는 특히, 종합경기장 인접단지를 관광과 연계하는 상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연간 임대료는 m²당 1,600프랑(한화 30만원)으로, 4,000~6,000프랑을 호가하는 라데팡스 지역의 1/3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라데팡스 지역과 유럽 소재 기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르 파리지앵, 11. 6)

④ 시내 전차역마다 「담배꽂초함」 설치 (독일 :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는 전차역마다 담배꽂초를 버릴 수 있는 박스(사진 참조)를 설치했다. 市는 흡연자들이 역 바닥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통을 설치하게 되었다. '키피(Kippy)'라고 이름 붙인 이 통은 네모난 박스 윗부분에 담배 모양을 한 막대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통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담배꽂초함」의 설치비용은 브레멘은행이 지원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수거비용도 이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WESER KURIER, 11. 21)



5] 2002년 하반기부터 ‘무공해’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시행 (L.A.)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미국의 도시와 州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市를 비롯, 캘리포니아州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2002년 하반기에 시판하기 시작하는 2003년형 모델부터 저공해차 판매량이 최소한 총 판매량의 10%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중 2%는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州에서는 의무판매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뉴욕州는 저공해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2007년 이전에 저공해차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 2007년에 전기자동차 의무판매를 면제해주는 ‘크레딧 부여(Zero Emission Vehicles Credit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체가 2002년에 저공해차인 고성능 혼합연료차를 1대 팔 경우, 2007년에 12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11. 12)

6] 배기가스정화장치 장착한 디젤차에 ‘인증스티커’ 부착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조치에 앞서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조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를 장착한 디젤차에 한해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사진 참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都는 이에 따라, 직경 12cm의 원형 스티커를 배기가스정화장치 제조업체에 지난 11월 27일부터 교부하기 시작했다.

배기가스정화장치 제조업체는 트럭이나 버스 등의 디젤차에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장착해준 후 이 스티커를 트럭업주에게 주고, 트럭업주는 스티커 하단에 정화장치 지정번호를 기입한 후, 차체 2군데에 붙이게 된다. 都의 환경보호조례에 따르면, 2003년 10월 이후에는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디젤차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11. 28)



7 「자동차배기가스 無人단속기」 도입 추진 (런던)

런던을 비롯, 영국에서는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자가용승용차를 단속하기 위해 無人단속기가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 이 無人단속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배기가스 방출량을 측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며, 단속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된다. 현재 이 無人단속기는 영국 북동부 일대와 요크셔지방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되고 있다. 교통부는 범칙금을 약 65파운드 수준으로 정했으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범칙금 징수를 통한 세수 증대효과만 거둘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영국운전자협회 등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환경오염 감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aily Mail, 11. 27)

8 노후교량 보수공사 전면 시행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최근 1983년 건설된 풍데자르 다리 상판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시도로교량부는 상판이 나무로 된 보행자용 다리에 구멍이 생기고 나무가 썩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말까지 상판을 전면 교체키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풍네프 다리 등 3개의 다리에 대한 보수공사도 올해 안으로 착수키로 하는 등 내년 말까지 총 8개의 다리를 보수할 계획이다.

(르 파리지앵, 10. 31)

9] 청소년들이 자발적·독립적으로 운영하는 「市청소년위원회」 창설 (파리)

프랑스 파리는 최근 13~25세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를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시위원회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파리시 각 區의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區別로 당국에 의한 하향식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에 청소년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파리시 각 區의회는 區別로 조직되는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11월말 현재 5개 區에서 ‘위원회 인정’을 의결했다. 아직 ‘위원회 인정’을 의결하지 않은 區의회도 위원회의 활동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다만, 예산지원 폭과 조직의 성격 및 대상을 좀더 구체화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 제18區에서는 대상청소년 연령층을 13~18세로 좁히고,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를 인정하기도 했다.

(르 파리지앵, 11. 7)

8]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위해 보육시간 연장한 탁아소 설치 (파리)

프랑스 파리는 3세 미만 유아의 보육기관인 기존의 ‘크레쉬(Creche)’ 외에 크레쉬보다 운영시간을 늘린 ‘알트-가르드리(Halte-Garderie)’를 최근 설립함으로써 현재 두 종류의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크레쉬의 운영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일요일 및 바캉스 시즌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퇴근이 늦은 저소득층 및 학생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제13區에 설치한 ‘알트-가르드리’는 운영시간이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방학중에도 운영한다. 시는 앞으로 연간 237만 프랑(한화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알트-가르드리’를 집중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 파리지앵, 11. 6)

음식판매포장마차 - 지역음식점간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L.A.)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포장마차들이 매년 2,000대 이상씩 市에 압류될 정도로 포장마차 불법영업이 사회문제가 되어온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에서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판매 포장마차와 지역음식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도시발전연구원은 음식물을 파는 포장마차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최근 맥아더공원 포장마차 영업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市는 1999년부터 포장마차 영업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으나, 포장마차들이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인근음식점들과 과도한 경쟁을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 및 음식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도시발전연구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음식판매 포장마차는 디자인을 통일하고 정기적으로 市환경위생국의 감독과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상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사탕·과일·소다류 위주로 판매 하되, 만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에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포장마차가 음식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근 음식점에서 해당음식을 구입해 거리에서 소비자들에게 팔거나, 인근음식점에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장마차가 지역음식점의 움직임은 판매대가 되고, 지역음식점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저장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음식점과 포장마차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통해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이 전면 시행되면, 음식판매 포장마차는 세금납부를 비롯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Los Angeles Times, 11. 18)

市長이 자치구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시정 보고 (파리)

프랑스 들라노에 파리市長은 지난 10월 30일 각 구청장을 시청으로 초청, 올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데 있어, 11월 5일부터는 제3區를 필두로 각 區를 돌며 15~20분 정도 시정 보고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데에는 ‘반대의견 개선 및 사후평가가 없는 일방적인 시정 보고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며, 市長이 직접 자치구에 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올바른 자세’라는 우파 진영의 비판도 한몫 했다. 파리市의 각 區는 구청이나 대형 체육관에 시정 보고 행사장을 마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長의 시정 보고는 올해 12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르 파리지앵, 10. 31)

만화제작 벤처기업의 캐릭터 상품화 지원 강화 (동경)

일본 東京都는 만화 및 게임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都는 인터넷기업 및 콘텐츠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정보 벤처포럼」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캐릭터를 상품화하려는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유망한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완구업체 등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都는 지난 7월 포럼 내에 ‘정보내용분석회’ 설치를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개최된 캐릭터발표회인 ‘제1회 캐릭터 프라자 2001’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만화전용사이트 운영업체와 게임개발·완구·제과업체 등 20개 관련업체가 참여했다.

(日本經濟新聞, 11. 20)